2025. 7. 7

금융 Weekly Insight

2Q 실적 시즌을 앞두고 높아지는 기대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7월 둘째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박세웅 Research Associate sewoong.park@samsung.com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지난주 +1.4% w-w 상승, KOSPI 대비 1.5%p outperform. 6월 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은행주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경영진에 대한 주문이 수익성 중심 경영 및 이에 기반한 주주 환원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주담대 영업의 약화는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 한편, 2Q 말 원/달러 환율은 1Q 말 1,473원/달러 대비 118원/달러 하락한 1,355원/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은행들의 CET-1비율 개선 여력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 향후 관건은 7월 2Q 실적 중 은행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의 변화 여부 및 그 속도가 될 전망.
- 증권 - 업종 지수 -6.0% w-w 하락하며 코스피를 언더퍼폼.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던 증권 업종은 전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에 따라 일부 차익 실현세가 확인되는 모습. 시장의 관심은 2분기 및 하반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
- 보험 - 업종 지수 -0.5% w-w 하락하며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 2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장기 손해율 악화 등 부진할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본 규제 완화 가능성에 따른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감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주가 향방은 결국 자본 규제 관련 당국의 완화 검토 진척 사항이 관건.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6/29) 서울 아파트 74% 대출 축소 타격** -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의 비대면 대출 접수 일제히 중단. 대부분 은행은 중단 기한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공표. - 이는 정부 대책의 비대면 구현까지는 전산 시스템의 변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74%가 대출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가계 대출 영향 불가피 - 다만, 이미 계약된 물건은 진행:**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가계대출 영향은 불가피 할 전망. 다만, 이미 계약된 물건에 대해서는 금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가계대출 순증액 감소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
	(6/29) 신한도 시니어 시장 참전 - 신한금융이 그룹 차원의 시니어 브랜드 플래티넘 100(가칭)을 선보일 예정. 이에 4천조원이 넘는 고령층 자산관리 시장을 둘러싼 금융사 간 경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 - 신한은 금융은 물론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 종합건강검진, 가사로봇 렌탈, 시니어 전문 레지던스 등이 대표적.	**KB, 하나 이어 신한까지:** KB는 KB골든라이프, 하나는 하나더넥스트를 이미 출시한 가운데 신한까지 시니어 시장 본격 공략. 3사 모두 금융은 물론 특화된 비금융 서비스 출시에 초점. 시니어 전문 레지던스가 관건 중 하나. **인구 고령화 - 은행 업무 행태 변화 불가피:** 과거 은행은 고객의 Life Cycle 초입에 모기지, 연금, 장기 보험 등을 통해 Lock-in 후 점진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전략 이행.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의 급격한 증가로 전략의 수정 불가피. **시니어 레지던스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특히, 시니어 레지던스의 니즈는 높은데, 절대적인 수의 부족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이에 자본력 우위 및 지속적 고객 접점 확보 니즈가 높은 종합금융그룹이 대안으로 부각 가능. **다만, 체질 변화 필요:** 다만, 금융사 시니어 전략 핵심은 필요한 금융 서비스 제공임을 상기 필요.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상품들 출시되는 가운데, 향후 관건은 고령층 자산관리 역량. 즉, 금융사들은 금융 상품 판매가 아닌, 진정한 자산관리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주 내 금융 계열사 간 협업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6/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내년 시행**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가 분리과세 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	**배당주에 긍정적 기대:**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발하는 Nudge 기대도 있지만, 보다 직관적으로는 배당주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 가능. 특히 은행주의 경우, 높은 배당 수익률에 비해 국내 지분율이 낮은 현 상황을 감안, 긍정적 효과 기대. **다만 관건은 분리과세 기준:** 다만, 관건은 분리과세 기준이라 판단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올해 주주 환원율은 40%를 넘을 전망이지만 상당 부분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기 때문. 즉, 향후 분리과세를 위한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준 설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7/1) 5월 예대 금리 차 더 확대 -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 예대 금리 차 (신규 취급액 기준)는 1.54%로 6bp m-m 상승. 예금 금리는 2.63%로 8bp m-m 하락한 반면, 대출 금리는 4.17%로 2bp 하락에 그쳤음. - 대출 금리의 더딘 하락은 기업 대출 금리가 4.16%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기 때문. 4월 중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대거 취급된 기저 효과에 기인.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세.	**금리 하락 사이클은 진행형:** 5월 신규 NIS 확대의 이유는 4월 정책 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기저효과로 언급. 즉, 이외의 가계대출 등은 여전히 금리 하락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잔액기준 NIS의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가계대출 급증 불구 양호한 NIS 관리에 초점 필요:** 작년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과정에서 극심한 NIM 축소를 경험. 이는 은행간 경쟁 심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 하지만, 올해 4~5월 가계대출 증가 속도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NIS 관리는 은행간 경쟁 지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7/1) 대출한도 줄고금리는 오르고 -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10bp 가량 인상한 것으로 보도. - 가계대출 급증 문제로 관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도. "	**가산 금리 인상에 따른 NIM 개선 효과는 미미할 전망:** 일각에선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이 NIM 및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금번 정책의 핵심은 금리 인상이 아닌, 매월 집행되는 대출 공급액의 축소에 있음. 즉, 일부 주담대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하지만, 실제 전체 NIM은 물론, 이자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증권	**(7/1) 손발 묶인 초강력 부동산 규제… 부동산→주식 머니무브 가속화될까** - 대선 이후 한 달여 만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그간 부동산에 묶일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자본시장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 존재. - 학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세제 인센티브가 이뤄지면 머니무브가 가능할 전망. 또한 이는 모험자본 공급 및 혁신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거래대금 및 증시 주변 환경 지표는 매우 양호, 다만 급하게 올라온 주가 측면에서 주의 또한 필요:** 실제로 대선 이후 6월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33조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 이에 더해 증시 주변 자금 지표인 예탁금 또한 67조원을 돌파하며, 21년 최대치 수준에 근접. 다만, 증권업 종주가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급하게 상승한 만큼,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또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구간으로 판단.
	(7/1) 발행어음 인가 첫날부터 신청한 키움, 신한, 삼성증권 - 금융 당국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개시한 첫날부터 증권사 세 곳에서 신청 인가 제출. 또한,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도 당국과의 사전 준비 작업을 조율 돌입.	**조달 수단 증가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 실제 마진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은 확인이 필요:** 발행어음 및 IMA 모두 증권사 입장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특히 IMA의 경우 원금보장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은행권 등의 자금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신시장으로서의 기대감 또한 작용할 수 있을 것. 관건은 조달한 자금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1) 충분한 마진을 수취하는 동시에, 2)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운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 실제로, 기존 발행어음 비즈니스 진행 증권사에서도 일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마진, 유동성 지표 등이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도 존재.
	(7/3) 높아지는 IMA 허들… 자기자본 8조원 外 심사 기준 확대 전망 -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아직 종투사(IMA) 사업자 인가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이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것과 대조적. - IMA 인가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직 상품 구조, 운용 규제 등 관련 입법예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증권사로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단계에서의 종투사 신청이 부담스러운 상황. - 금감원은 IMA 상품이 국내 첫 출시되는 만큼, 자기자본 8조원 요건 외에도 1) 자전거래 방지 대책, 2) 원금보장 상품 구현 방안 마련 등 역량을 집중 심사할 것으로 예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험	**(7/3) 새로운 보험사 건전성 규제 하에서는 장기채권 중요도 상승** - 금융 당국은 7/2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예정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ALM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도 검토, - 이는 현재의 보험사 건전성 악화가 보유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당국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등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현실적으로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외 장기채 매수, 선도거래 등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ALM 관리 수단 다변화 필요:** 단순한 장기채권 매입은 1) 이미 보험사별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전략인 동시에, 2) 이에 따라 오히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 또한 관찰되고 있는 상황. 결국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듀레이션 갭 명목 수치 관리라는 과제를 부여함과 동시에, 1)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등 부채관리 방안 및, 2)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등 ALM 관리 수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 또한 동반될 것으로 기대.
	(7/4) 보험사, 코스피 훈풍에 자본 확충 위한 '유상증자 딜레마' - 기본자본 K-ICS비율 等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강화 방안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실적 개선 외에 자본 확충 카드가 마땅히 없는 보험사들의 셈법 복잡. - 일부 대형사는 기본자본 K-ICS비율을 50~150% 수준으로 유지 중이나, 중소형사는 유상증자 外 선택지 제한적. 다만, 이는 주가 희석 우려로 부담. - 실적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문제. 결국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 관리가 까다로워진 상황."	**보험사 M&A 매물 출회 지속될 전망:** 기본자본비율이 현 논의대로 도입된다고 가정할 시, 중소형 보험사들은 증자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결국 보험사 M&A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매수자 우위의 시장 현상 또한 지속될 전망. 한편, 대형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자본력을 활용하여 M/S 확대 등 시장 지배력 재편의 추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
카드	**(7/2) 6.27 대책에 카드론도 포함** -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은 가운데, 카드론도 신용대출 범주에 표함하기로 결정. 카드론까지 묶어 대출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 - 카드 업계는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 위축 가능성을 우려.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론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 - 한편,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비교적 소액이고 익월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	**실적 볼륨 성장 둔화 당분간 지속 불가피:** 올해 1Q를 저점으로 결제 금액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출 사업은 위축 불가피 전망. **실적에 있어 관건은 대손 비용이 될 전망:** 다만, 실적 회복에 있어 최대 관건은 볼륨 성장보다는 대손비용률의 하락 반전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
결제	**(7/3) 금융당국, 티메프 방지 가이드 협의 중**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하반기 중 PG업자들의 정산 자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PG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지급보증 보험의 방식 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것 - 현재 PG업자들의 정산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 행정지도 시행 후 유예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지 조율 중"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 행정지도가 올해 중 발표된다는 점은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 이는 24년 티메프 사태 이후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류되고 있어 PG업자 및 투자자에게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 대형 전업 PG사 영향은 제한적: 대형 전업 PG사의 경우, 정산 기간은 2~3일 정도로 매우 짧음. 이는 여타 중소형 PG사의 정산 기간과는 대조적. 이에 대형 전업 PG사의 정산 자금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핀테크	**(6/29) 한은 CBDC 사업 잠정 중단 발표** - 한국은행은 CBDC 사업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을 발표. - 당초 올해 4Q 2차 테스트 예정이었으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병존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테스트 보류를 결정. - 이에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이벵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도. 오픈블록체인 DID협회에 지속적으로 은행들이 가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시드도 최근 주요 은행들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논의."	**스테이블 코인 - 은행의 참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오히려 은행에게는 위기로 해석.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역금융 결제와 같은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은 은행 역량이 필요한 가운데, 은행들의 적극적 협업에 따른 서비스 구현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any	News	Implication
신한지주	**(7/4) 우리그룹, 동양생명 잔여지분 전량 현금 인수 방안 검토** -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우리금융은 7월 1일부로 동양 및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가운데, 동양생명 잔여지분 21.2% 인수를 고려 중인 것. - 이를 위해 공개매수 방안과 우리금융 주식으로의 주식 교환 방식을 고려 가능. 다만, 후자의 경우, 교환 비율 이슈는 물론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이슈도 부각 가능. - 공개 매수의 경우, 관건은 지분 인수가격. 현재 동양생명 주가는 6천원대 중후반이지만, 대주주와 같은 프리미엄 적용 시 투입 비용은 예상치 대비 50% 가까이 증가 가능.	**은행 지주는 통상 100% 자회사화 추진:** 은행 지주는 통상적으로 금융 계열사 인수 시, 100% 자회사화를 추진해 왔음. 이는 금융그룹 내의 자본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자본 적정성은 물론 수익성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동양생명의 잔여 지분 인수 – 소액 주주 이해 관계 고려 필요:** 우리금융 입장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각 사 별도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양사의 합병이 자본비율 및 중복 cost 제거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합리적. 다만, 동양생명은 상장사이고 ABL생명은 비상장사인 만큼, 양사 합병 이전에 동양생명의 100% 자회사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한편, 잔여 지분 인수가격은 다소 부담일 수 있지만, 동사가 연간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 오히려 조기에 생보사 정상화 및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보다 초점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07-08 (월)		유로존 5월 소매판매 유로존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독일 5월 산업생산 영국 6월 할리팩스 주택가격 지수 일본 5월 경기동향지수 (예비치) 중국 6월 외환보유액
2025-07-08 (화)	국무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 1분기 자금순환 (잠정)	미국 6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미국 5월 소비자신용 지수 일본 5월 경상수지 일본 6월 은행대출 일본 6월 경기현황 지수
2025-07-09 (수)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6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EU에 50% 관세 부과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 미국 5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일본 6월 공작기계수주 (예비치) 중국 6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중국 6월 생산자물가 지수(PPI)
2025-07-10 (목)	금융통화위원회 월간 재정동향 옵션 만기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6월 생산자물가 지수(PPI)
2025-07-11 (금)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6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확정치 독일 5월 경상수지 영국 월간(5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영국 5월 산업생산 중국 6월 차량 판매 (연간)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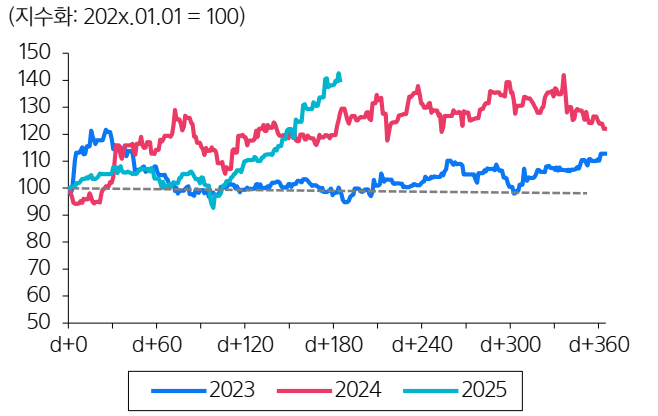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5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코스피		2,435.5	3,054.3						(0.1%)	10.2%	8.1%	27.3%
KRX은행		155.5	1,168.1						1.4%	11.6%	33.9%	40.1%
KRX증권		42.3	1,323.5						(6.0%)	12.9%	73.9%	79.6%
KRX보험		64.0	2,339.8						(0.5%)	9.9%	11.7%	23.3%
결제 지수*		1.157	n/a						(0.8%)	21.8%	8.3%	29.2%
은행	KB금융	42.8	112,100	48.9	0.7	10.5	7.1	15.7	1.4%	3.9%	30.5%	35.2%
	신한지주	31.2	63,000	42.4	0.6	10.0	6.0	18.2	4.1%	5.2%	20.0%	32.2%
	하나금융지주	24.3	85,400	41.9	0.6	10.3	5.7	14.5	1.4%	14.6%	29.8%	50.4%
	우리금융지주	17.0	22,900	35.3	0.5	9.9	5.5	-0.5	1.8%	12.8%	54.2%	49.0%
	기업은행	15.1	18,950	32.0	0.5	9.8	5.5	10.2	3.6%	19.9%	33.0%	32.2%
	BNK금융지주	4.3	13,400	38.4	0.4	7.8	5.4	8.8	7.4%	19.7%	52.4%	29.6%
	iM금융지주	4.2	21,600	34.8	0.4	8.9	4.8	118.1	4.9%	12.7%	42.2%	32.7%
	JB금융지주	2.2	13,200	44.9	0.8	13.0	6.0	3.1	5.2%	16.4%	60.8%	61.4%
	카카오뱅크	13.9	29,100	45.0	2.0	7.9	26.1	20.9	(7.5%)	22.8%	38.2%	38.2%
증권	미래에셋증권	11.1	19,380	51.6	0.9	7.7	14.6	1.2	(9.2%)	9.6%	149.4%	141.3%
	NH투자증권	6.4	19,900	54.0	0.8	9.0	8.8	6.2	(0.1%)	11.0%	53.0%	42.7%
	한국금융지주	7.4	132,900	20.8	0.7	9.9	7.4	-12.9	(5.3%)	16.9%	83.8%	86.4%
	키움증권	5.3	210,500	33.8	0.8	13.2	7.0	4.1	(7.9%)	21.7%	54.8%	81.2%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0.4	113,300	53.7	1.7	22.3	8.7	1.2	1.0%	(0.5%)	35.9%	8.9%
	삼성화재	19.9	432,500	41.0	1.2	12.7	9.7	5.1	(0.6%)	1.6%	15.3%	20.6%
	삼성생명	24.8	123,900	42.4	0.6	7.6	7.9	9.9	(1.9%)	13.9%	35.6%	30.7%
	DB손해보험	8.7	123,400	25.5	1.0	20.5	4.7	-4.3	0.9%	19.0%	7.8%	20.0%
	한화생명	2.8	3,185	11.3	0.3	6.3	4.3	-8.1	(3.6%)	3.4%	4.6%	29.5%
	현대해상	2.4	27,350	0.0	0.5	17.7	2.7	-15.6	2.6%	9.0%	(20.8%)	10.7%
결제	카카오페이	10.7	79,100	n/a	n/a	2.8	208.3	흑전	(6.1%)	112.1%	199.1%	201.3%
	NHN KCP	0.4	10,760	n/a	n/a	17.4	8.7	10.0	(3.5%)	40.5%	19.3%	51.5%
	KG이니시스	0.3	10,840	n/a	n/a	8.7	4.5	64.3	0.2%	15.7%	0.7%	22.6%
	KG모빌리언스	0.2	5,320	n/a	n/a	10.0	4.9	4.0	(1.5%)	18.4%	8.0%	12.1%
	나이스정보통신	0.2	22,350	n/a	n/a	8.6	6.7	218.5	4.2%	5.2%	4.4%	24.6%

참고: 7/4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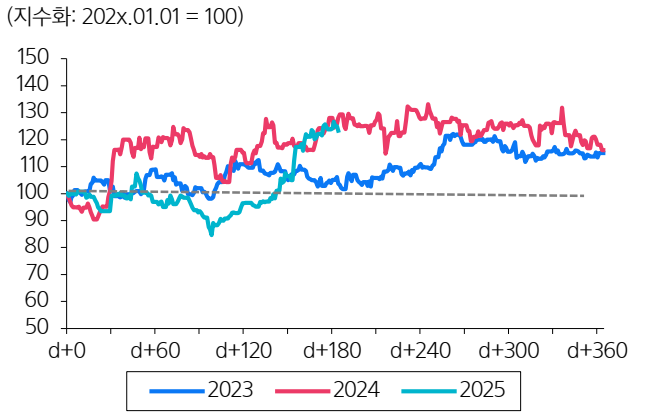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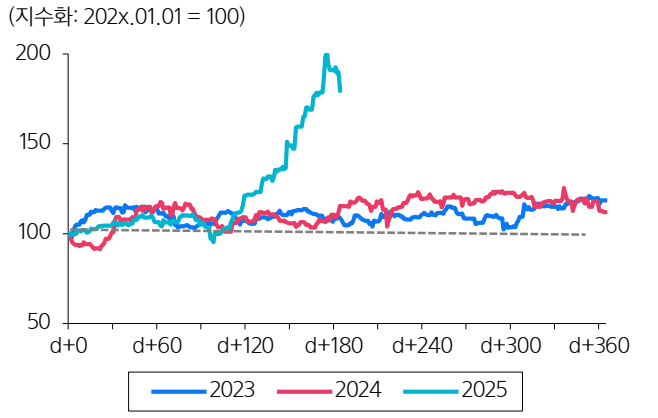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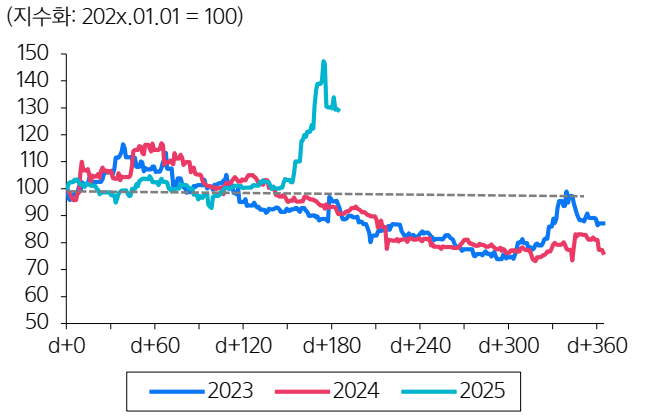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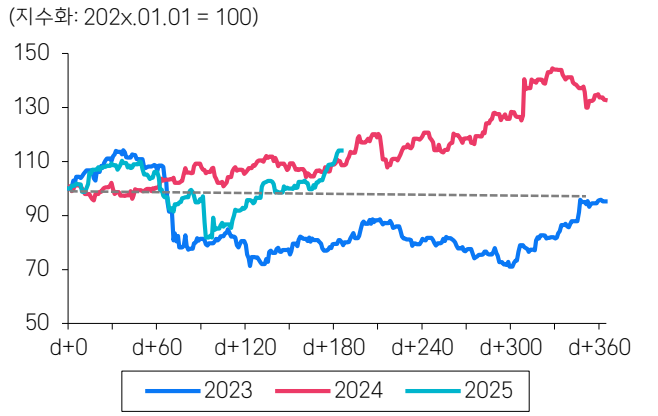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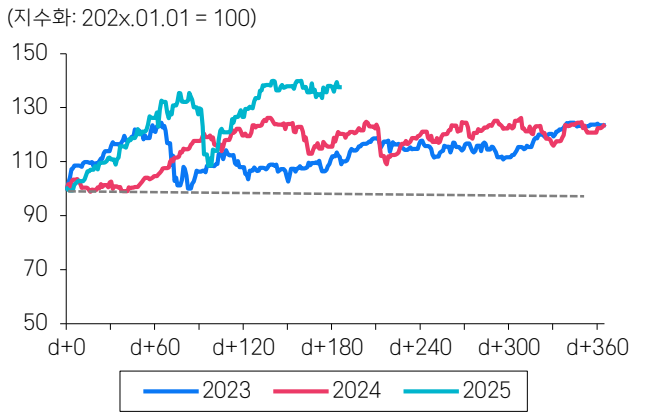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22.6	87.0	2.4	15.4	16.0	(6.4)	2.1	11.4	41.8	23.5
		Bank of America	368.5	29.4*	1.3	10.0	13.5	11.2	3.4	8.8	19.6	11.3
		Citigroup	165.7	97.0	0.8	7.0	12.2	22.3	4.2	13.4	37.6	26.0
		Wells Fargo	272.0	101.0	1.6	11.4	14.4	8.4	4.3	9.5	37.8	19.0
		PNC Financial	77.8	65.8	1.5	11.5	13.1	9.4	5.4	10.0	24.6	1.9
	유럽	Banco Santander	125.0	62.5	1.1	12.5	7.8	13.2	1.5	0.7	58.2	59.7
		Unicredit	103.6	96.0	1.4	15.5	8.8	2.6	(0.8)	(3.0)	52.5	46.5
		BBVA	87.7	59.9	1.2	16.6	7.6	(3.1)	(1.1)	(2.5)	34.4	36.6
		ING Group	70.5	123.2	1.1	11.4	10.1	(6.2)	2.1	2.2	14.6	25.7
		Lloyds	61.6	99.3	1.1	10.4	12.0	0.0	(1.7)	(2.0)	31.6	37.6
		Barclays	63.9	63.5	0.7	9.3	9.0	0.0	(2.0)	(0.8)	47.3	23.3
	일본	Mitsubishi UFJ FG	165.4	63.1	1.1	9.8	11.2	10.1	(0.3)	0.7	8.2	7.1
		Sumitomo Mitsui FG	97.9	61.0	0.9	9.2	10.3	16.7	0.1	0.6	(3.0)	(3.4)
		Mizuho FG	69.5	36.6*	0.9	9.9	9.8	16.5	(0.1)	1.0	11.9	3.0
	중국	China Construction Bank	280.4	30.4*	0.6	9.9	6.3	(1.1)	3.7	12.8	48.2	26.7
		China CITIC Bank	65.3	29*	0.6	9.4	6.5	(9.1)	3.7	7.6	60.3	44.5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46.3	N/A	1.5	6.7	24.5	(52.0)	(0.2)	(1.7)	19.0	6.8
		AIG	47.9	212.6	1.1	9.0	13.5	흑전	(2.8)	(4.8)	10.7	14.3
		Travelers Insurance	59.8	56.0	1.9	14.7	14.1	(12.8)	(1.3)	(3.5)	29.7	9.6
	유럽	Allianz	155.4	77.5	2.1	17.8	12.3	10.0	(0.7)	(3.8)	30.6	15.5
		AXA	107.0	52*	1.8	17.4	9.6	22.1	(1.6)	(4.0)	27.8	20.2
		Generalli	54.7	57.5*	1.4	13.6	11.0	12.9	(0.7)	(7.7)	25.3	10.0
	일본	Tokio Marine	78.4	41*	2.1	19.6	11.5	(6.3)	(4.2)	(5.6)	(6.7)	2.2
		Daiichi Life Insurance	27.8	45.5*	1.1	11.3	10.4	(9.9)	(1.1)	(3.0)	(7.7)	2.4
	중국	Ping An Insurance	132.5	35.9*	0.9	12.9	7.0	(0.5)	0.4	9.5	36.6	8.7
		China Life Insurance	137.6	22.3*	0.9	14.0	6.1	(19.6)	(2.0)	10.7	70.3	25.7
		PICC P&C Insurance	42.8	37.4*	1.2	13.2	9.4	11.7	(0.5)	0.1	53.8	23.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30.4	102.1	2.0	13.1	16.2	10.3	2.3	17.9	54.7	26.4
		Morgan Stanley	231.2	77.1	2.3	14.2	16.7	8.3	2.3	9.3	43.9	14.7
		Charles Schwab	170.9	84.5	3.5	17.3	22.1	38.5	0.3	3.7	23.4	23.6
		Robinhood	83.3	42.1	9.9	14.2	74.0	(18.2)	0.8	26.1	312.4	153.4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9.9	68.7	7.2	33.5	21.6	8.6	2.9	8.5	39.2	10.6
		Discover	N/A	48.6	N/A	19.3	N/A	(18.9)	N/A	N/A	N/A	N/A
결제	미국	VISA	711.3	22.3*	18.2	55.2	33.2	11.1	1.1	(3.1)	33.4	13.5
		MasterCard	516.9	19.5*	70.5	204.7	36.1	13.6	1.3	(3.5)	27.0	8.1
		PayPal	74.5	0*	3.5	24.0	15.5	24.0	3.1	4.3	28.4	(10.3)
	유럽	Adyen	56.3	0*	8.9	23.3	42.4	20.8	(2.6)	(12.0)	33.9	5.6
핀테크	미국	Block	42.6	0*	1.9	7.3	35.6	(57.3)	1.9	6.5	7.4	(18.5)
		Upstart	7.0	0*	9.1	14.3	528.7	N/A	14.1	35.9	220.0	19.9
		Affirm	22.3	0*	7.4	0.5	1,419.7	N/A	0.1	17.4	138.8	13.6
	중국	LuFax	2.4	N/A	0.1	(2.7)	4.5	흑전	0.0	0.0	(9.5)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7월 4일 종가 기준
* 현금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